

“광주-대구 합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달빛 산업동맹

‘달빛동맹발전위’ 출범…전담팀 구성 공동과제 발굴
철도 조기 건설·신산업벨트 조성·산업문화교류 확대

굳건한 ‘달빛동맹’으로 하늘길과 철길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등 동반성장을 위한 동맹 강화에 나선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달빛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두 도시의 당연직 위원 6명과 철도·도로·공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촉직 위원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2015년 제정된 ‘광주-대구 달빛동맹 강화 발전 및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에 첫 출범해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 등 시 통과 등에 기여했다. 이날 발족한 2기 위원회는 기존 달빛동맹 사업인 문화 및 체육교류, 달빛동맹특별관(식품·뿌리·의료·로봇 등) 운영 등에 공동 협력하는 한편 경제·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와 대구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민간교류 활성화 및 두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특히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조기건설, 신산업벨트 조성, 인재육성 등 달빛산업 동맹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2기 달빛동맹위원회가 두 도시의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두 도시가 힘을 합쳐 거대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한 신산업벨트 조성 등 달빛산업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남부거대경제권 중심축이 될 달빛동맹 발전위원회가 새롭게 출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달빛동맹으로 나아가겠다”며 “광주와 대구는 원팀으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하늘길(군공항), 철길(달빛철도)을 풀어냈고 이제는 남부거대경제권이라는 산업동맹의 길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광주와 대구 두 도시는 2013년 8월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 강화’를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한 뒤 2·28민주화운동 기념식,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교차 방문,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광주-대구 지역 문화, 체육,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교차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한편 강기정 시장과 정무장 시의회 의장, 이정선 시교육감, 5·18 행사위원회, 공무원 등 광주시 대표단은 이날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대구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하고, 대구 두류공원 2·28 민주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매년 5·18과 2·28 기념식에 대표단을 보내 교차 참석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518번 시내버스, 광주에서는 228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등 민주주의 정신을 일상 속에서도 교감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장애인 활동 지원 을 1524억 배정

전년보다 20% 증액…돌봄 서비스 질 향상·자립 지원

전남도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밀착해 도와주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지원 규모를 각각 확대했다. 전남도는 28일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전년보다 253억원 증액(19.9% 증액)한 152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바라는 모든 등록 장애인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수급자격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기준을 국가보훈 대상자(상이등급 3~7급)까지 확대했다. 또 활동지원사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3.7% 인상해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또 국비 지원 이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등급에 따라 월 최대 458시간을 추가 지원해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 법정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16개 마을기업 최대 3000만원 지원

209개 마을기업 활동…전국 최대

전남 16개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통해 전남지역 16개 마을기업을 비롯, 전국 116개 마을기업을 지정했다. 전남 마을기업은 전국의 14%를 차지, 선정 기업이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지정 횟수에 따라 재지정·고도화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는데,

전남에서는 10개 기업은 재지정, 6개 기업은 고도화 분야에 선정돼 최대 2000만(고도화)~3000만(재지정)원을 지원받게 됐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벌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209개 마을기업이 활동중으로, 전국 마을기업(1798곳)의 11.6%를 차지해 가장 많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 에너지밸리산단에 이차전지 배터리 공장 신설

매그나텍, 8월 말부터 리튬인산철 파우치셀 시범 생산

광주 에너지밸리산단에 이차전지 배터리 제조공장이 들어선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셀을 생산하는 ㈜매그나텍 광주1공장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탄광사오(Tan

Guangshao) 리릭로봇(Lyric Robot·중국) 대표 등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매그나텍은 이차전지용 음극재와 전고체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으로, 광주시와 지난해 8월 투자협약을 했다. 광주1공장에는 리튬이온전지의 단점을 보완해 안전성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리튬인산철(LFP) 파우치 셀 파일럿 1라인을 구축, 양산을 목표로 시

범 생산을 할 예정이다. 광주1공장 준공은 오는 8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차전지·수소연료전지·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유망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들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광주시가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이끄는 선도도시로 나아가도록 이차전지 유망기업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전남도, 만 18~45세 1인당 최대 연 12만원…4월 8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대상자를 오는 4월 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남에 주소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이다.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범위가 만

45세 이하까지 확대돼 만 39세 이하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던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청년이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은 4월 8일까지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4월까지 지원 대상자 1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선상환 후지원 방식으로 분기마다 개인별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한 후 월 최대 10만원(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지역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유도해 구인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역시 우수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미선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라며 “2019년부터 지금까지 500여명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이 같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참재로 ★
★ 무 ★
★ 합미제 ★
★ 편성향료 ★